

정기적 시기별 곤충상 조사를 통한 곤충다양성의 변화 패턴

박근호¹, 조수원^{*}

¹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, *충북대 식물외학과

곤충은 모든 생물 중에서 생물다양성 정도가 가장 높은 그룹이다. 전 세계적으로 밝혀진 곤충의 종 수는 이미 100만종을 넘어섰으며, 이는 전체 동물 종 수의 약 80%를 차지하는 것이다. 이러한 높은 다양성과 적응력 때문에 생물다양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로 활용되고 있다. 그러나 실제로 한 지역에 대한 곤충상 조사는 보통 계절별 1-2회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, 조사 횟수가 다양한 곤충상을 반영하려면 얼마나 자주 채집조사를 하여야 할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다.

조사는 충북대학교 내 곤충상을 중심으로 2003년 봄부터 가을까지 매 2주마다 채집을 실시, 총 16회 채집조사를 하였으며, 채집 장소는 교내 4곳을 선정하여 장소별로 곤충다양성을 비교하였고, 장소마다 4가지 채집방법을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채집방법별 비교도 실시하였다. 그 결과, 모두 14목 672종이 조사되었으며, 가장 많이 나타난 곤충류는 나비목으로, 370종을 차지하였고, 그 뒤를 이어 딱정벌레목과 파리목 곤충이 많았다. 또한 시기별로는 5월-7월에 가장 많은 종류의 곤충이 조사되었다.

채집시기별 비교에서는 특히, 어느 한 시점에서의 채집에서 조사된 곤충의 약 30%만이 그 다음 2주 후의 채집에서 중복되어 조사되었다. 이것은 물론 보다 나은 곤충상 조사를 위해서는 가능한 한 자주 채집을 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보다 객관적으로 제시하는 것으로,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채집을 실시하는 것이 그 지역의 곤충상을 그나마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.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곤충상 조사에 필요한 채집을 위한 인적, 경제적 지원의 확충은 물론, 채집물의 정리 및 동정에 소요되는 시간적, 인적 요인에 대한 대폭적인 확충이 절실하다 하겠다.